

한-영 시 번역에서 시제와 상: 신경림 시를 중심으로*

한 미 애
(동국대)

1. 서론

시제(tense)와 상(aspect)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언어마다 시제와 상을 체계화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번역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시는 소설에 비해 분량이 짧아 시에서 시제와 상은 전체의 의미 해석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정시와 서사시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 번역에서 시제와 상의 번역 문제는 중요하다. “서정시의 본질적 시제가 현재시제인 데 반하여 서사(소설, 서사시)의 그것은 과거 또는 완료시제다”(김준오 2019: 126). 서정시는 시적 화자가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느끼는 순간을 표현하므로 주로 현재시제를 사용한다. 반면 서사시는 시

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상상한 이야기를 전하므로 과거시제나 완료형을 사용한다.

한국어 시를 영역한 텍스트에서 시제와 상이 시적 효과와 시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제와 상은 시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분석 텍스트는 신경림 시를 선택했다. 신경림은 시의 특성에 따라 현재시제나 과거시제 등을 사용하여 서정성과 서사성의 조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신경림 시인은 “전통적인 서정시에 거부감을 느끼고 내 속에서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려”(정희성, 최원식 1995: 31)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시인은 “시적 서정성을 서사라는 형식으로 표현”(조효주 2018: 14)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경림 시를 “서술시, 서사지향적 시, 이야기체 시”(오수연 2007: 137)라고 일컫기도 한다. 신경림은 민중시인일 뿐 아니라 “서사적 요소를 시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서정미학의 단서를 제공한 시인”(이종대 1995: 310)이다.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를 대조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와 상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본다. 또한 문법체계나 언어적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deviation)의 전경화 효과를 알아보고 일탈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본다. 3장에서는 시와 시제의 관계, 특히 서정시에서 현재시제의 효과를 정리한다. 시제가 시적 장치로 사용된 예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신경림 시와 두 종류의 영역시를 시제와 상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하며 번역양상에 따라 해석이나 시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분석 텍스트는 시제가 혼용되어 있는 「그들」, 「전설」, 「그날」, 「농무」와 영역본 두 종류이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밝힌다.

2.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와 상

시제(tense)는 사건의 시간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된다. 상(aspect)은 사건의 시간적인 분배 즉, 사건의 완결이나 계속 등과 관련이 있다(Baker 1992: 98). 시제와 상은 시간 개념을 동사의 형태로 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5612).

법화 한 것이다. 시간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시제와 상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다르게 문법화 되어 있다.

2.1 시제

시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점이다. 시점에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시점인 상황시점(point of event)과 화자가 말을 하는 발화시점(point of speech)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 두 가지 시점의 상관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시제는 상황시점이 발화시점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경우이고, 현재시제는 상황시점과 발화시점이 시간적으로 동일한 경우이며, 미래시제는 상황시점이 발화시점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경우이다(허용, 김선정 2014: 279-280).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의 삼분법 체계는 보편적이다(이승훈 1983: 126). 하지만 한국어나 영어의 시제를 비과거, 과거의 이분법 체계로 보기도 한다. 미래 시제를 시제체계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시제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시제에 사용되는 ‘*will*’, ‘*shall*’은 미래의 의미 외에 추정, 의지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강수언 1992: 112-114; 조경숙 2003: 186-187; Depraetere and Tsangalidis 2020: 399).

상황시점과 발화시점의 상관관계에 따라 시제를 구분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가 동일하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는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현재의 상태나 상황, 습관적 동작, 불변의 진리, 추상적 개념 등을 표현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어와 영어는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과거의 상태나 상황 등을 표현하는 것도 동일하다. 하지만 “영어는 한국어에 비하여 시제 형태와 그 의미 기능간의 대응성이 보다 엄격한 시제 체계를 형성”(조경숙 2001: 43)하고 있다. 즉 영어는 시제 일치가 문법화 되어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호응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시제 일치가 문법화 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문맥 등을 통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 나는 네가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했다.

(2) I thought that you listened to music.

(1)에서는 주절의 과거시제 ‘생각했다’가 종속절의 현재시제 ‘듣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2)에서는 주절의 과거시제 ‘*thought*’가 종속절 동사에 영향을 미쳐 과거시제 ‘*listened*’가 되었다. 즉 (1)에서는 나의 과거 시점과 너의 현재 시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반면 (2)에서는 나의 과거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 “시간의 언어표현에 있어서, 한국어는 그 시점을 이동시키며, 영어는 그 시점을 고정시킨다”(강수언 1992: 119). 즉 한국어에서는 시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주절의 과거시제가 종속절의 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영어는 시점이 고정되어 주절의 과거시제가 종속절의 시제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시제와 과거시제가 번갈아 사용된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아래의 예문도 자연스럽게 시점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리소리가 들려온다. 구슬픈 피리소리였다. 그런데 그 피리소리는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안달이 날 밖에 없었다. (강수언 1992: 119)

첫째 문장과 셋째 문장은 현재시제이고 둘째 문장과 넷째 문장은 과거시제이다. 이 구절에 대해 김경우(2013: 73)는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 사이를 이동한 것으로 설명한다. 피리소리를 듣는 사람은 주인공이고,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사람은 전지적 작가이다. 주인공 시점에서 사건을 기술할 때 현재시제가 사용되었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을 기술 할 때는 과거시제가 사용된 것이다.

2.2 상

시제가 발화시점에 대한 상황시점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면, 상은 사건이나 상황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행 중인지, 완료된 것인지를 나타낸다(허용, 김선정 2014: 301). 영어의 aspect에 해당되는 ‘상’은 시간의 과정을 나타내므로 ‘시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영어의 진행형은 be동사 + ~ing로 표시하고, 완료형은 have + P.P로 표시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진행형과 완료형은 독립적인 문법형식이 없다. “-고 있-’는 진행의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행의 뜻 이외에 상태서술의 기능도 가지고”(강수언 1992: 124) 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서술한 것이다.¹⁾

한국어는 문맥 정보에 따라 현재시제가 현재진행의 의미나 현재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과거시제가 현재완료나 과거완료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산책을 했다’는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는 어제 산책을 했다’(과거), ‘나는 두 시간 동안 산책을 했다’(현재완료), ‘나는 어제 두 시간 동안 산책을 했다’(과거완료). 따라서 한국어의 시제를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3 비문법적 시제와 상

언어를 사용할 때 문법체계를 지켜야 하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문법에서 벗어나거나 규범에서 벗어난 문장 즉, 일탈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언어적 일탈의 인지적 효과는 전경화(foregrounding)이다. 즉 일탈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강조되어 독자들의 주의와 시선을 끌고, 글을 읽는 속도를 늦추어 일탈된 표현의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보게 하며,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예술의 목적은 어떤 대상의 기교(artfulness)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 있다”(Gregoriou 2014: 88) 전경화는 낯설게하기(defamiliarisation)와 연관되어 있다. 작가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일탈된 표현은 문학 텍스트에서 미학적 장치로 활용된다. “일탈은 특히 시적 언어의 특징”(Leech 2008: 59)인 만큼 시인은 언어적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일탈의 한 예는 토니 모리슨(Tony Morrison)의 시 “Long Distance II”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의 첫 행에 ‘my mother was already two years dead’가 나온다. 이 문장을 규범에 맞는 문장으로 고치면 ‘my mother had already two years been dead’이다(Jeffries 2020: 682). 일탈의 다른 예로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speech)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유간접화법에서는 과거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된다. 직접화법 ‘He said, “I am coming home next Tuesday”’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He said he was going home the following Tuesday’이다. 자유간접화법으로 바꾸면, ‘He was coming home next Tuesday’가 된다(683). 문법체계에서 과거 또는 과거진행형은 미래 부사 next 또는 현재 부사 now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문학 텍스트에서는 서술의 효과를 위해 자유간접화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등장인물의 목소리와 서술자의 목소리가 합해진 형태가 된다.²⁾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시제가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자유간접화법 이외에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도 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시와 시제

문학은 삶과 관련이 있으며 삶이란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과정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서사시는 세계의 과정이며, 서정시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내부의 경험이다(이승훈 1983: 140). 서사시는 이야기의 형태를 띠므로 현재완료나 과거시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서정시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이나 인상을 표현하므로 현재시제를 많이 사용한다. 이때의 “시제는 흔히 문법에서 규범으로 채택한 시제로서가 아니라 예술가의 시간의식과 미의식이 결합된 수사적 형태”(김준오 2019: 123)이다. 즉 시제에 나타난 시간 개념은 자연적 시간이 아니라 가상적 시간이다. 시인이 문학적 효과를 위해 만들어낸 시의 장치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작을 나타낼 때 영어에서는 진행형을 많이 쓰지만 시에서는 특히 서정시에서는 진행형 대신 현재형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효과 때문이다. 즉 “서정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시인이 자신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Langer 1953: 260).

1) 한국어와 영어의 진행형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영어가 한국어보다 진행형을 훨씬 많이 쓴다. 현재의 사건이나 행위를 기술할 때 영어는 주로 현재진행형을 사용하고 한국어는 주로 현재형을 쓴다(송경안 2019: 466).

2) 자유간접화법은 한국어 소설에도 서술의 다양한 효과를 위해 문학적 장치로 사용된다(한미애 2011: 212-215 참조). 신경림 시에서 자유간접화법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시제와 상으로 제한한다.

서정시의 현재시제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 효과는 무시간성(out of time)으로 몽상적인 비실제적 분위기를 창출하는 효과이다(Langer 1953: 273). 무시간성은 한 편의 시에서 어떤 시간 개념도 읽기 어려운 경우이다. 시간이 과거와 현재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상황이다. 즉, 무시간으로서의 시제는 추상적 실체, 일반적 진리, 몽상처럼 어떤 현실적 상황과도 단절된 순수한 관념에 대해 진술할 때 나타난다(이승훈 1983: 266). 현재시제의 두 번째 효과는 즉흥성으로 현재 순간의 행위를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즉흥성과 관련된 장치로는 역사적 현재가 있다(Langer 1953: 273). 역사적 현재는 문법적으로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할 곳에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함과 현장감, 순간감 등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역사적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기법이다. 역사적 현재의 예를 들면 “Only yesterday he meets me, asks me my name, and without waiting for reply walks off”(Lees 1902: 104)가 있다. 영어 문법에서 과거부사 yesterday는 반드시 과거시제와 함께 사용된다. 하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전경화의 장치로 과거시제 대신 현재시제가 사용될 수 있다. 역사적 현재가 시에서 활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wiftly, swiftly flew the ship,
Yet she sailed softly too;
Swiftly, swiftly flew the breeze—
On me alone it blew.
Oh! dream of joy! is this indeed
The lighthouse top I see?
Is this the hill? is this the kirk?
Is this mine own cowntree [country]? (Langer 1953: 269)

이 시는 영국 시인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가 쓴 「늙은 선원의 노래」(Rime of the Ancient Mariner, 1798)의 일부이다. 선원이 항해를 하다가 고향에 있는 항구를 발견하고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 부분이다. 과거시제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기쁨의 순간에 현재로 바뀌며 절정을 이룬다. 이 현재가 역사적 현재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즉 고향에 도착한 것을 알고 느꼈던 그 기쁨

을 마치 현재에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이다.³⁾ 즉 현재시제가 시적 장치로 사용된 것이다.

4. 신경림 시 번역의 시제와 상

4.1 분석 텍스트

원천텍스트(ST)는 「그들」, 「전설」, 「그날」, 「농무」이다. 이 시들은 신경림의 첫 시집 『농무』(1973)에 실려 있다. 『농무』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된 민중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민중이 느끼는 회한과 슬픔을 그리고 있다. 기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무』는 서사적인 대립구조 속에서 서정적인 감성을 구체화한 혼합 장르적인 특성”을 띤다(강정구 2014: 229). 즉 “서정 양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위에 서사적 기법을 수용”한다. 따라서 “신경림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질인 이야기성[서사]을 가지게 된다. 내면의 서정과 함께 과거의 회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표현한다”(조찬호 2008: 83).

목표텍스트(TT)는 영역시가 공통적으로 보다 많이 실려 있는 두 종류를 택했다. TT1은 *The Columbia Anthology: Modern Korean Poetry*(2004)에 수록되어 있다. 「그들」과 「전설」은 케빈 오록(Kevin O'Rourke)이 번역하였고, 「그날」과 「농무」는 데이비드 맥칸(David R. MacCann)이 번역하였다. TT2는 『농무: Farmers' Dance』(2002)에 수록되어 있으며, 번역가는 안선재(Brother Anthony of Taizé)와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영무이다.

4.2 「그들」과 “They”

(예 1)의 ST는 「그들」 전문이고, TT1과 TT2의 제목은 “They”이다. ST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번역 양상은 TT1과 TT2가 다르다.

3) 역사적 현재는 소설에서도 사용된다. 과거시제로 이야기를 전하는 소설에 역사적 현재라는 장치가 사용되면 서정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난다(한미애 2010: 298-299 참조).

(예 1)

ST:

쏟아지는 빗발 속을
맨발로 간다
서로 잡은 야윈 손에
멍이 맺혔다
성난 목소리로
나를 부른다
겉먹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흰 옷 입은 어깨에
피가 얼었다
몰아치는 바람 속을
마구 달린다

TT1:

Barefoot
they went through
the bucketing rain,
so tight their grip
skinny hands
weltd blue.
An angry voice
called me,
spat
in my craven face.
Blood congealed
on white shirted shoulders.
They raced through
the driving wind.

TT2:

They walk barefoot
through the pouring rain.
Bruises have formed
on the gaunt hands they clasped.
They call for me
in angry voices.
They spit
in my terrified face.
On their white-clad shoulders
blood has clotted.
They go rushing heedlessly
through the raging storm.

TT1은 동사를 모두 과거시제로 번역하였고, TT2는 교차적으로 현재시제와 현재완료로 번역하였다. 이는 ST의 ‘맺혔다’와 ‘얼었다’의 시제를 다르게 파악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2.2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형 ‘였’은 과거의 의미와 현재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TT1은 ‘맺혔다’와 ‘얼었다’를 과거시제로 해석하

여 ‘weltd’, ‘congealed’로 번역하였다. 심지어 ‘간다’, ‘부른다’, ‘뱉는다’, ‘달린다’를 모두 과거시제 ‘went’, ‘weltd’, ‘spat’, ‘raced’로 번역했다. 반면 TT2는 현재시제와 호응을 이룰 수 있도록 ‘맺혔다’와 ‘얼었다’를 현재완료로 해석하여 ‘have formed’, ‘has clotted’로 번역하였다. “문학에서 단순 현재시제는 어떤 행위의 인상을 창출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정지”(Langer 1953: 167)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따라서 TT1은 현재시제 대신 과거시제로 번역하여 몽환적 느낌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서술한 느낌을 준다. 즉 서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서사성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시제 ‘간다’, ‘부른다’, ‘달린다’에서는 마치 슬로 모션처럼 동작이 느리게 움직이고 과거/현재완료인 ‘맺혔다’, ‘얼었다’에서는 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적인 묘사와 역동적인 서술 간에 리듬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리듬감뿐만 아니라 신경림 시의 특성이 서정성과 서사성의 융합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TT2처럼 현재와 현재완료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는 서정적인 효과를, 현재완료는 서사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4.3 「전설」과 “(A) Legend”

(예 2)의 ST는 「전설」 전문이다. TT1의 제목은 “Legend”이고, TT2의 제목은 “A Legend”이다. 3연의 ‘도사리고 앉았다’를 과거로 보느냐 현재완료로 보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 번째 해석은 TT1처럼 ‘도사리고 앉았다’를 과거시제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설」의 이야기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된다. TT1은 1연의 ‘날뛰다’만 명사형 ‘a lunatic’으로 번역하였고, 나머지 동사는 모두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1연의 ‘마시고’, 3연의 ‘걸어놓다’는 시제일치로 인해 ‘drank’, ‘hang’으로 번역하였다. 문제는 4연과 5연의 ‘울다’를 ‘cried’로 번역한 것이다. ‘도사리고 앉았다’가 과거형이면 ‘울다’는 역사적 현재에 해당된다. 과거시제를 써야 할 곳에 현재시제를 사용하면, 역사적 현재의 전경화 효과가 난다. 따라서 ‘cried’보다는 ‘cries’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역사적 현재라는 일탈의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그 녀석은 과거에 죽었지만 되살아나서 마치 ‘지금’ 우는 것처럼 현실감이 강조된다. 이 장치는 생생한 효과를 내는 시적 장치인 것이다.

서 TT1처럼 과거시제로만 번역하게 되면 그만큼 독자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게 된다. “번역가의 창의성은 목표독자가 창의적인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Boase-Beier 2011: 54).

4.4 「그날」과 “That day”

(예 3)의 ST는 「그날」 전문이고 TT1과 TT2는 “That day”이다.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면, ‘그날’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 한 날로 ‘그날’은 과거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ST는 과거의 그날이다. 그렇다면 본문 내용에 사용된 현재는 역사적 현재가 된다. 역사적 현재는 “내러티브 현재”(Fludernik 1992: 22)라고도 칭하는 것처럼,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거의 그날 일어난 일이지만 마치 실제 현재에 일어나는 일처럼, 여자는 울고 사람들은 숨어서 여자를 본다. 장례의 모습이 새롭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예 3)

ST:
젊은 여자가 혼자서
상여 뒤를 따르며 운다
만장도 요령도 없는 장렬
연기가 깔린 저녁길에
도깨비 같은 그림자들
문과 창이 없는 거리
바람은 나뭇잎을 날리고
사람들은 가로수와
전봇대 뒤에 숨어서 본다
아무도 죽은 이의
이름을 모른다 달도
뜨지 않은 어두운 그날

TT1:
Alone, a young woman wept,
following the bier,
a procession without bells
or funeral banner.
Along the fog-shrouded, evening road,
phantom shadows.
The wind lifted tree leaves
on a street without doors or windows,
while others watched, hidden
behind phone poles or trees.
No one knew the name
of the one who had died,
that dark day,
with no moon rising.

ST에서는 어느 삶의 비애에 대한 주관적 서정과 객관적 경험이라는 서사성

이 조화를 이루어 죽음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4) 이러한 특성은 TT1에서는 다소 바뀔 수가 있는데, 이는 사건의 동작을 전하는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나 과거완료로 번역되어 서정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시제 대신 과거시제를 택한 이유는 ‘that day’와 호응시키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규범에 맞는 문장은 되었으나, 일탈을 통한 전경화의 효과는 사라진 셈이다. 일탈된 표현은 언어적 규범에 어긋나지만 시적인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TT1과 달리 TT2는 ‘that day’가 있음에도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 ‘that day’와 본문의 현재시제가 호응이 되지 않는 일탈로 독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시제는 역사적 현재가 된다. 역사적 현재는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동사를 현재시제로 사용함으로써 인상의 강렬함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준다. 장례식을 치렀던 그날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TT2:

One young woman all alone
follows weeping behind a bier.
A procession with no funeral banners,
no hand-bell in front. Ghost-like shadows
along the smoke-veiled evening road,
a breeze scattering falling leaves
down alleys with neither doors nor windows,
while people watch hiding
behind telegraph posts and roadside trees.
Nobody knows the dead
man’s name that dark
and moonless day.

제목은 시 내용보다 먼저 제시되므로 본문 내용의 인지적 틀을 형성한다. “제목은 주제(theme)에 해당되고 시 자체는 평언(rheme)에 해당”(Kenesei 2010:

4) 「그날」은 죽산 조봉암을 모티브로 한 시이다. 죽산 조봉암은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나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조효주 2019: 284).

52)되는 것이다. ‘그날/that day’라는 주제가 인지적으로 활성화 되어 본문에 현재형이 와도 과거의 그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역본에서도 ‘that day’가 본문의 내용을 과거의 의미로 활성화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4.5 「농무」와 “Farmers’ Dance”

(예 4)의 ST는 「농무」의 앞부분이다. 이에 해당하는 TT1의 제목은 “Farmer’s Dance”이고, TT2는 “Farmers’ Dance”이다. 본문에 나오는 시적 화자가 복수형 ‘우리’이므로 “Farmers’ Dance”가 더 적절해 보인다.⁵⁾

「농무」는 짙막한 서정시 형태 속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행위를 선명히 서술함으로써 농민의 삶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환기시키며 서사적 흥미의 이점을 충분히 살렸다(김준오 1998: 40). 특히 「농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극단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묘사를 통한 극적 장면화라고 할 수 있다”(오성호 1996: 405). 여기서 묘사는 현재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재시제의 효과는 묘사의 ‘무시간성’이다. 현재시제를 활용하여 농무를 마친 후의 농민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정서를 완결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순간의 정서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극도로 시간적인 거리를 생략”(홍문표 1995: 400)하게 된다.

(예 4)

ST: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5) TT1의 끝부분에서 ‘우리’를 ‘I’로 번역하고 제목도 단수로 처리했다(이일환 2016: 118). ‘I’의 번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경림 시의 서사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이 공동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서사의 객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한다

시 전체가 현재시제로 묘사되고 1행 ‘내렸다’만 과거시제이다. 이 표현은 내재적 일탈에 속한다. “외재적(external) 일탈은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 형태이다. 내재적(internal) 일탈은 텍스트 자체의 규범과는 다른 언어 형태이다”(Wales 2011: 111). 미학적 장치로 사용된 일탈은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전경화 효과 또는 낯설게하기 효과가 있다. 즉 “‘농촌의 막이 내렸다’는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장치”이다.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한 농민들의 희망의 막이 내렸다는 것, 인생의 막이 내렸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이세진 2013: 21)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는 TT1과 TT2에서는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번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TT1:

Gong sounds, curtain lowers.
 Makeshift stage, lights
 strung from a paulownia.
 The viewers have left
 an empty playing field.

Faces stained with powder, we drink,
 jammed into the wine shop
 by the school.
 Suffocating, exhausted,
 lamentable life.

TT2:

The ching booms out, the curtain falls.
 Above the rough stage, lights dangle from a paulownia tree,
 the playground’s empty, everyone’s gone home.
 We rush to the *soju* bar in front of the school
 and drink, our faces still daubed with powder.
 Life’s s mortifying when you’re oppressed and wretched.

TT1과 TT2는 ‘내렸다’를 각각 ‘lowers’와 ‘falls’로 번역하였다. 혹 ‘내렸다’를 현재완료로 번역하더라도 현재와 현재완료는 시점이 같기 때문에 ST처럼 내재적 일탈은 아니다. 또한 ‘돌아가고 난’에 해당되는 ‘have left’와 ‘s gone’도 내재적 일탈은 아니다. 시제와 달리 상은 시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완료된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문법체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상실(loss)과 이득(gain)”(Bassnett 2002: 36)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TT는 ST처럼 일탈이라는 미학적 장치가 유지되지 않았지만, 번역을 통해 독자층이 폭넓어졌다는 이득이 있다 하겠다.

5. 논의 및 결론

시제와 상을 분석한 결과, “Farmers’ Dance”에서 TT1과 TT2는 ‘내렸다’를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 ST에서는 ‘내렸다’만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내재적 일탈이 되었지만 영역본에서는 내재적 일탈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없었다. 이는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They”, “(A) Legend”, “That Day”에서 TT1과 TT2의 시제와 상 번역 방식은 차이가 났다. TT1은 “They”, “Legend”의 경우, ‘있, 었’에 해당하는 동사를 과거시제로 파악했고, 현재시제형 동사까지도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That Day”의 경우, 과거 부사와 호응을 이루도록 ST의 현재시제를 모두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결과적으로 TT1은 일탈된 문장을 영어 규범에 맞추어 번역하여, 시제가 과거시제로만 구성되었다. 시제가 단일하게 구성되어 맞닿을 뿐 아니라 인상이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서정적 현재의 효과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TT2는 “They”, “Legend”의 경우, ‘있, 었’에 해당하는 동사를 과거시제로 번역하기보다는 현재완료로 번역하여 현재시제와 호응을 이루도록 했다. “That Day”의 경우, 과거 부사와 현재시제가 함께 놓이도록 번역함으로써 역사적 현재라는 시적 장치를 살렸으며, 일탈을 통해 진경화 효과가 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TT2는 일정 부분 영어 규범을 지키면서 ST의 서정성과 서사성의 혼합적인 특성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TT1과 TT2에서 시제와 상 번역이 차이 나는 간접적 요소를 두 가지로 고려

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TT1은 단일어 텍스트인데 반해 TT2는 이중 언어 텍스트라는 점이다. 단일어 텍스트는 ST가 함께 제시되지 않은 만큼 보다 번역가의 해석이 원본에서 자유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 면에는 한국어 시가 있고 다른 면에는 영역 시가 실린 TT2는 ST의 의미에 보다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TT1은 원어민 번역가가 번역하였고 TT2는 원어민 번역가와 한국인 번역가가 공동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인 번역가가 원어의 시제와 상의 의미를 정확하고 폭넓게 해석하고 원어민 번역가가 보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신경림의 시 영역에만 제한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제와 상이 서사성과 서정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점이기는 하나 이 두 장르를 구분 짓는 다른 특징, 즉 화법이나 담화 구조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이 부분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신경림 시를 번역할 때 시제와 상은 서정성과 서사성을 표현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언어적 일탈이라는 시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수연 (1992)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강정구 (2008) 「신경림 문학의 서사성 재고」, 『한국시학연구』 23: 69-92.
 강정구 (2014) 『신경림과 민족문학 다시 읽기』, 서울: 국학자료원.
 김정우 (2013) 「국어의 특징과 번역상의 함의: 시점과 사건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67-84.
 김준오 (1998) 「서술시의 서사학」, 현대시학회 (편저), 『한국 서술시의 시학』, 서울: 태학사, 15-46.
 김준오 (2019) 『시론』 제 4 판, 서울: 삼지원.
 송경안 (2019) 『언어의 유형과 한국어 그리고 영어』, 서울: 역락.
 오성호 (1996) 『『농무』의 리얼리티와 형상화 방법』, 『국어문학』 31: 393-414.
 오수연 (2007) 『『농무』의 문체 연구』, 『비평문학』 26: 129-151.
 이세진 (2013) 『신경림 시의 어조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훈 (1983) 『문학과 시간』, 서울: 이우.
- 이일환 (2016) 「우리나라 시의 영역 고찰: 서정주, 고은, 신경림」, 『영미문학연구』 30: 99-124.
- 이종대 (1995) 「신경림 시의 서사성 연구」, 『동악어문학』 30: 307-324.
- 정희성, 최원식 (1995) 「신경림 시인과의 대화」, 구중서 외 (편저) 『신경림 문학의 세계』, 서울: 창비, 11-46.
- 조경숙 (2001) 「시제 체계에 대한 한영 비교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2(1): 21-44.
- 조경숙 (2003) 「영 한 시상 체계에 관한 유형적 비교 연구」, 『언어학』 11(4): 185-210.
- 조찬호 (2008) 『신경림 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효주 (2018) 『신경림 시의 주체와 현실』, 서울: 역락.
- 조효주 (2019) 「말할 수 없는 목소리의 ‘말하기’와 자기재현: 신경림의 『농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3): 261-292.
- 한미애 (2010) 「황순원 소설의 문체번역 가능성: 「소나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293-310.
- 한미애 (2011) 「문학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번역학연구』 12(4): 205-229.
- 허용, 김선정 (2014) 『대조언어학』 2판, 안양: 소통.
- 홍문표 (1995) 『현대시학』 개정 4판, 서울: 양문각.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oase-Beier, Jean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Depraetere, Ilse and Anastasios Tsangalidis (2020) ‘Tense and Aspect’, in Bas Aarts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English Grammar*, Oxford & New York: Oxford UP, 396-417.
- Fludernik, Monika (1992) ‘The Historical Present Tense in English Literature’, Available at <https://freidok.uni-freiburg.de/fedora/objects/freidok:5343/datastreams/FILE1/content>.
- Gregoriou, Christiana (2014) ‘The Linguistic of Foregrounding in Stylistics’, in Michael Burk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tyl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87-100.
- Jeffries, Lesley (2020) ‘Literary Variation’, in Bas Aarts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English Grammar*, Oxford & New York: Oxford UP, 673-692.
- Kenesei, Andrea (2010) *Poetry Translation through Reception and Cognition*, Tyne: Cambridge Scholars.
- Langer, Susanne (1953) *Feeling and Form*, London &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Limited.
- Leech, Geoffrey (2008) *Language in Literature: Style and Foregrounding*, Harlow & New York: Pearson Longman.
- Lees, John (1900) *A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Available at <https://archive.org/details/englishgrammaron00leesrich/page/n5/mode/2up>.
- Wales, Katie (2011) *A Dictionary of Stylistics* thir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분석텍스트>

신경림 저, Brother Anthony of Taizé, and Kim Young-Moo (trans.) (2002) 『농무: *Farmers' Dance*』, 서울: 답게.

David McCann (ed.) (2004) *Columbia Anthology: Modern Korean Poetry*, New York: Columbia UP.

[Abstract]

Tense and Aspect in Korean-English Poetry Translation

Han, Miae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lation of tense and aspect from Korean to English, and presents the influence of them on poems as a poetic device. For this, the two translated versions of Shin Kyongnim's four poems are compared and analyzed. It is because Shin's poems include the present tense that conveys the feeling of lyric poetry, and the past tense or the present perfect that narrates a story in narrative poetry.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the two versions, the method of translating tense and aspect of his one poem is similar in that internal deviation for foregrounding is not preserved. It seems inevitable because of different grammatical systems between Korean and English. However, the methods of translating tense and aspect of his three poems are different in the two versions. What differentiates one version from the other is interpretation of Korean tense morphemes '-ass (았)', '-yeoss (였)' since the expressions have the meanings of the past tense and the present perfect according to contextual information. Another factor of differentiation is related to linguistic deviation for foregrounding. One version loses lyric emotion, feeling and immediacy by translating the historical present or the timeless present into the past tense. On the other hand, the other preserves the present as a poetic device that has the vivid, immediate, or visionary effect. Therefore, translators should take in consideration effect of the pure present and the past tense/the present perfection on lyric and narrative poetry.

▶ Key Words: poetry translation, tense, aspect, poetic device, Shin Kyongnim
▶ 주제어: 시 번역, 시제, 상, 시적 장치, 신경림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